

# 사람과 사람사이



## 제97차 이사회 개최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5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남 산청군에서 실시 예정인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와 겸해 현지에서 제 97차 중앙이사회를 개최한다.

지난 32회 정기총회 이후 처음 갖게 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1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 세부실행 방안과 향후 협회 발전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한화갑 최고위원 초청 정책간담회 참석



■ **황인구** 회장은 오는 11일 직능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한화갑 최고위원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 국내 생약농업의 현안 문제점과 생약재배농민들의 애로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국내 생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지회장 말아



■ **이웅황** 경기도 안성군 지부장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지회 회의에서 신임 경기도 지회장에 선출됐다. 이웅황 지회장은 지난 년 협회 가입한 이래 안성군내 생약재배 보급과 기술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이 지회장은 4월 5일 안성군에서 경기도지회 회의를 개최, 지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회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회장 당연이사직 협회 규정에 따라 이용황 지회장은 중앙이사직을 수행하게 되며 전임 지회장인 김성배 지회장도 남기철 이사의 감사직 수행으로 인한 이사직 1인 결원으로, 중앙이사직은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 남궁희 부회장 사임

■ **남궁희** 부회장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협회 부회장직을 사임. 동대문구 지부장으로서 평회원으로 남게 됐다.

## [농림부 인사]

농림부 채소특작과 특작계 정수환 주사가 시설계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자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던 황신규 씨가 새로 부임.

## [임명]

△천명석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공판장장(2001.1.11일부) △김삼진 강원도 영월군 지부장(2001.1.8일부) △고한중 제주도지회장(2001.1.18일부) △김종운 대구광역시 남구 지부장(2001.2.13일부) △이영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부장(2001.2.13일부) △박순신 경기도 광명시 지부장(2001.2.20일부) △조대현 강원도 횡성군 공판장장(2001.2.20일부) △이웅황 경기도지회장(2001.3.10일부)

## [해임]

△김우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판장장(2001.1.17일부) △최민남 경기도 오산시 지부장(2001.2.1일부) △김혁 전라남도 여수시 남구 지부장(2001.2.1일부) △김동수 전

라남도 신안군 지부장(2001.2.1일부) △임철 제주도 서귀포시 지부장(2001.2.1일부) △전재성 경상북도 영주시 북부 지부장(2001.2.1일부) △정운영 전라북도 순창군 지부장(2001.3.5일부) △장영철 전라남도 광양시 지부장 겸 공판장장(2001.3.5일부) △장금수 강원도 태백시 공판장장(2001.3.7일부) △조상현 경기도 평택시 지부장(2001.3.31일부)

## [명의변경]

△경기도 양주군 공판장장 송상중→박희경(2001.3.12일부)

## [중앙회원 가입]

△이동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02-28(2000.12.11일부) △한영호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889-3(2001.1.5일부)

## 시간안내

### <상용 수입 한약재 감별법>

수입 한약재의 진위를 감별하는데 참고할 만한 <상용 수입 한약재 감별법>이 시간안내로 발간됐다.

지형준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명예교수와 대한약사회 한약위원장을 지낸 김양일 약사가 함께 펴낸 이 책은 수년간 한약재 감별위원을 지낸 저자들의 현장경험과 산지에서 얻은 생생한 지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평이다.

두 저자가 지난 92년부터 틈틈이 한약재 생산국인 중국, 소련,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유럽 등을 다니며 확인, 비교해 만든 이 책은 원생약, 혼용품, 유사품, 진품 등을 그림과 함께 표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이 책은 또, 중국의 도지약재(중국 각지에서 생산되며 품질이 매우 우수함)와 4대 약재시장을 소개함은 물론 △약재의 관능시험법, △중약재 산지별 년간 수확율, △중약재 각 성의 약칭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초류에서부터 뿌리줄기 꽃, 잎, 과실, 종자류나무, 줄기, 뿌리 및 껍질수지 균, 광석, 동물 등 각양각색의 생약소재를 정밀하게 분석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사: 도서출판 신일상사 / 값: 40,000원/문의: 02-843-3281, 3861

## 나도 한마디

### “특별회원제 검토해 볼만”



정형모 부회장

26개 수급조절 품목 중에서 강활, 방풍, 목단, 치자, 향부자 등 5개 품목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방된다. 갈수록 국내 생약 생산 기반은 위태로워지고 수입개방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돼 가고 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어도 될 것인가? 한의학 발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국내 생약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도 분명한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 그래서 더욱 생약생산자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할과 정체성 찾기는 더욱 시급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인적구성상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협회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국내

는 것은 어떻게? 아무리 수입산 한약재가 홍수를 이룬다고 해도 정작 소비자들의 경우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국산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한의원이나 한약방들은 국산 한약재를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쓸수 있어 좋고, 우리 협회 회원들도 직거래를 통해 판로를 열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이들 특별회원 업체들에 대해서는 생약보를 통해 국산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로 꾸준히 홍보해 준다면 소비자들의 호응도 클 것이고 이는 곧 상호 상승작용을 가져와 국산한약재의 소비촉진 효과도 거둘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해 협회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약생산 농가들을 끌어안고 조직화함으로써 생산자단체로서의 진면목을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 약재에 대한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자인 한의원이거나 한약방들 중 국산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 특별회원으로 구성하

## 제32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 “생약보 활성화” 지적

○...감사보고에서 운영환감사는 “업무능력 극대화를 위한 사무국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생약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진단과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생약보의 농촌현장 전달기능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신지 중심의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약보 기능 활성화와 이를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중앙공판장 하

반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참고관리 부실로 진피 1,220근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공판장 장소가 협소하여 매 장부근에 참고를 무료 임대하여 사용해 오던 중 지난 여름 장미철에 진피가 젖어 부패됐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 남기철씨 새 감사로 선출

○...운영환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지난 총회에서 2명이 감사로 선출됐는데 왜 혼자만 감사한 이유가 뭔가”

라는 이재문 상주시 공판장장의 의의제기에서 출발한 김용한씨 감사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총회시간 80%를 다 소진할 만큼 오랜시간을 끌었던 시간.

지난 31회 총회에서 선출된 김용한씨의 감사자격 여부를 놓고 회원간의 견해차로 인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감사 1인을 재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과 “김용한씨가 감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

결국은 제천의 남기철 공판장장과 김용한 영주시 공판장장이 추천된 가운데 임연학 명예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 회원들의 거수 투표 결과 근소한 표 차로 남기철 공판장장이 새 감사로 선출됐다. 이로써 지난 1년간 무수한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감사문제는 일단락 마무리된 셈이다.

### 생약인상 시상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 국내생약농업 육성과 회계신장에 공이 큰 회원 16명에게 각각 농림부장관 표창, 협회장 상, 생약인 상을 수여했다. 시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농림부장관 표창=강명기(이사·사천시지부장), 윤동찬씨(아산시 동부지부장) 허

수(강원도지회장·춘천시지부장)▲협회장 상=강병길(전북 익산시 지부장), 김상호(부산 진구갑 지부장), 박도순(전남 고흥군 지부장), 박봉순(강원도 속초시 지부장), 손순돌(경남 진주시 동부 공판장장), 심관섭(충남 보령시 지부장), 연기흥(충북 음성군 지부장), 윤맹호(대구 동구 신천동 사무소장), 이계춘(서울 용산구 지부장), 이진경(경기도 안산시 지부장) ▲생약인 상=명해동(충남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248), 손경희(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082), 이광희(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431-1)(이상 가나다 순).